숭고한 맹세와 더불어 빛나는 거룩한 한생

위인의 맹세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력사적의의와 무게가 부각되는 법이다.

오늘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주체의 한길, 사회주의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빛나는 현실은 그에 대해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는 9월 1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룡남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신 때로부터 62돐이 되는 날이다.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 큰뜻을 새기신 남산의 맹세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느시며 조선해방의 비장한 결심을 다지신 포평나루터의 맹세와 더불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이시려는 장군님의 룡남산에서의 맹세는 위대한 실천으로 조선이 세계우에 우뚝 올라선 영광의 현실을 안아오시려는 불멸의 력사적선언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운명, 미래를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 인민, 우리 겨레의 무궁번영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한생을 바치시려는 더없이 크고 신성한 맹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남산에서 다지신 그날의 맹세를 지켜 한생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공화국을 이끄시여 승리와 변혁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새시대를 안아오시였다.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만이 조선혁명을 힘있게 향도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풍부화하시였다.

또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인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인 강철전선에서부터 우리 인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국의 건설력사에 자랑스러운 페지를 아로새긴 평양번영기가 열리였으며 세상사람들이 《20세기 문예부흥》으로 격찬한 주체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기가 펼쳐졌다.

뿐만아니라 천만인민이 하나의 뜻, 하나의 발걸음으로 뭉쳐나가는 조선의 새 모습이 태여났고 조선로동당이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당으로 건설되였다.

주체의 기발아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지키는 투쟁은 그 한걸음 한걸음이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을 동반하는 피어린 려정이였다.

자주로선을 견지하는것을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중핵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건드리거나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시였으며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식으로 해결하여오시였다.

특히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시기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불굴의 정신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조국수호의 최전방에서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피어린 길에서는 사탕알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사회주의를 지키고봐야 한다는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다.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대덕산, 지혜산, 351고지,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고지들과 초소들에로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빨찌산식강행군길이야말로 보통의 각오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실행할수 없는 험난한 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이 희생적인 헌신의 애국장정길이 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공화국인민에게 자존의 넋을 심어주시고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여 강국건설의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쳐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이 있다.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의지를 받들어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땅우에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 웅대한 뜻을 피력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앞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선언을 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는 비상히 높아졌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에서 다지신 맹세를 받들어 조선을 누리에 빛내이실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불철주야 애국헌신, 애민헌신의 대장정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희생적인 헌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고…

천재적인 예지와 담대한 배짱, 비범한 령도로 공화국을 세계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에서 다지신 맹세는 이 땅우에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청년중시정치와 공화국의 밝은 미래

예로부터 10년을 위한 계획은 나무를 심는것이고 민족을 위한 백년대계는 청년들을 옳바로 키우는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고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지금 공화국에서 청년들의 정신세계는 어떠한가.

자기들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을 위해 바치며 조국보위초소와 수천척 지하막장 그리고 공장과 농어촌, 발전소 등 사회주의건설장들 그 어디서나 커다란 포부와 리상을 안고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가는 청년들의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다.

번화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원진출하여 사회주의대지에 청춘의 땀을 바쳐가는 남녀청년들,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예로운 군사복무를 마치고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간 제대군인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가는 강선땅의 《처녀어머니》와 같은 미덕의 주인공들, 외진 섬마을과 산골마을의 학교, 분교들에 자원진출해간 대학졸업생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지어낼수도 없는 공화국청년들의 고상한 풍모와 투쟁기풍은 오직 청년중시를 조선로동당의 3대전략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청년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꽃펴날수 있는것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맞이한 주체101(2012)년에 청년절경축대회를 성대히 가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전선시찰의 길에서 청년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축하문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당과 국가사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해 1월 청년들에 대한 교양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자는것이 바로 자신의 지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이 강해야 당도 강하고 국가도 강해진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시고 청년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산세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커다란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주체105(2016)년 4월 발전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당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우리 당력사에 청년들이 새기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자욱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하시면서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진정 청년들에게 이 세상 더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청춘시절을 값있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나라가 젊어지고 인민이 젊어지고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인 청년들이 육성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반동통치로 하여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우환거리로, 범죄의 온상으로 되고있을 때 공화국의 청년들은 절세위인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 첨단과학기술의 개척자, 미덕과 미풍의 소유자들, 강국건설의 돌격대, 휘황찬란한 미래의 주인공들로 그 이름 빛내이고있다.

이런 청춘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어 공화국의 전도는 밝고 양양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심 철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국가방역능력건설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오늘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국가방역능력건설사상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그에 대해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에서 당면한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하는것과 함께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방역능력건설의 기본내용은 우선 전체 인민을 조선로동당의 방역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방역의식을 높여 방역사업이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되도록 하는것이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발생사태이후 2년 3개월동안 공화국인민은 국가가 취한 선제적이며 강력한 방역조치와 시책들을 일치단결된 조직력으로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안정된 방역환경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중단없이 다그쳐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장치나 물질기술적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전민항전, 전민합세로써만 대승을 이룩할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염병의 발생과 류입,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 소멸할수 있게 국가적인 방역제도와 체계를 구축하는것과 함께 방역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와 보장사업을 강화하며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문제들도 국가방역능력건설의 기본내용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국가방역능력은 나라앞에 도래하는 그 어떤 보건위기도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할수 있는 공고화된 사업체계와 질서, 기술력량과 물질적토대, 잠재력의 총체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국가방역능력건설사상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방역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그 어떤 방역위기속에서도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무조건적으로 책임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집약된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뿐만아니라 임의의 위기상황에도 주동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략을 밝혀주는 가장 독창적인 사상이며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 대중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 덕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사회의 본태, 자립경제의 위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가의 방역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참으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 가장 열렬한 인민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역대전을 진두지휘하시기에 공화국은 방역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보다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올것이다.

백 명 일

사랑담아 지어주신 이름들

세상만물에는 다 이름이 있고 이름에는 자기고유의 뜻이 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역시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크나큰 기대와 사랑, 바라는 뜻이 담겨져있고 하나하나의 창조물, 건축물마다에는 그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일 뜻이 깊고 듣기에도 좋은 이름을 지어붙이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인민의 천하제일락원으로 변모되는 공화국의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창조물들가운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신 건축물들과 제품들도 있다.

본사편집국은 그 이름들에 비낀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펼쳐보고저 한다.

뜻이 깊고 아름다운 이름—
경 루 동

수도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는 지난 4월 황홀한 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냈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이름은 《경루동》이다.

이 이름에는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이 담겨져있다.

지난해 8월 건설중에 있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경루동》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이를 심의해볼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근로하는 평범한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구슬로 지은 집을 주고싶으신 마음이 얼마나 곡진하시였으면 이처럼 강안다락식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까지 경루동으로 제안하시였으랴.

경루동.

위대한 어버이의 위민헌신의 구슬땀이 모이고모여 그대로 구슬다락들이 된듯싶은 이곳에 보금자리를 편 인민들은 꿈같은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며 세상에 부럼없는 복락을 누리고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들의 집주소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에 넘쳐 대답하고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중구역 경루동이라고.

본사기자 오 해 연

수필
인사에 담아보는 생각

무릇 사람들은 서로 만나거나 헤여질 때 또는 어떤 련계가 지어질 때 안부를 묻거나 안녕을 바라며 례의를 표시하군 한다.

그것이 바로 인사이다.

생활속에서 너무도 례사롭게 나누는 인사, 일상적인 례의범절의 하나인 그 인사가 절세위인에 의해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한 무게와 심원한 의미, 크나큰 정과 열, 불가항력을 담게 된다는것을 나는 얼마전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또다시 절감하였다.

력사에 금문자로 길이길이 아로새겨질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고저 한다고, 부디 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축원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감격이 나의 가슴속에서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또다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면서 수도방역전장을 지켜섰던 모든 동무들의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에 넘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때문에 방역전에서 승리한 동무들에게 축하의 인사보다 앞서 모두가 그 위기를 디디고 이렇게 건강해준것이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방역전쟁의 승리를 위해 바치신 자신의 천만로고, 희생적인 헌신은 다 묻어두시고 오히려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심혈로 지켜준 이 나라 인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보내실 때 나는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도저히 누를수가 없어 쌓이고쌓였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있지만 우리 공화국에서처럼 수령으로부터, 령도자로부터 건강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며 사는 인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참으로 생각이 깊어졌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정, 믿음이 담긴 뜨거운 인사를 송구스럽도록 받아안으며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전승의 환희로 끓어번지던 경사스러운 그날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주고 오늘도 우리모두에게 정신적기둥으로 큰 힘이 되여주시는 온 나라 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시였다.

어찌 전승절의 그날에만 울려퍼진 그이의 인사의 말씀이랴.

지금도 귀가에 쟁쟁히 울려오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광장에 울려퍼진 경애하는 그이의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 《고맙습니다!》, 또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발전지침을 책정하는 력사적인 전원회의에서 견인불발의 완강한 노력으로 당대회가 열린 2021년을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인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뜨거운 인사를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어느 한 공장의 로동계급한 물고기가공장에 들리시여서는 녀성로동자들에게 깊은 인사를 보내고 또 보내신 원수님이 아니시던가.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로년의 전쟁로병들과 이 나라의 평범한 로동자들, 협동전야에 진한 땀 묵묵히 묻어가는 평범한 농장원들뿐만이 아닌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안는 경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인사이다.

력사를 거슬러보아도 현시대를 둘러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그렇듯 인민을 위하시고 존경하시는분은 찾아볼수 없다.

수령이 인민에게 보내는 인사!

그 인사에서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본다. 그 인사에서 그이의 진함없는 위민헌신, 멸사복무의 세계를 가슴벅차도록 안아본다.

정녕 그렇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인민에게 보내주시는 뜨거운 인사는 그대로 온 나라 인민들의 힘과 기적의 원천이며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다.

위대한 수령이 인민에게 보내는 인사!

나는 이 말을 조용히 외우고외워보며 그렇듯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사는 영광넘친 나라의 공민이 된 긍지와 영예를 가슴뿌듯이 되새기였다.

그리고 그 긍지와 영예를 안고 위대한 우리 수령, 위대한 우리 당,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해,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리 어머니》의 선률이 나의 심중에 더욱 뜨겁게 안겨들었다.

…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열백번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싶어라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치리라
아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로동당이여

김 순 남